

KWDI

해외통신

2020년 1월 1차 (2020.1.1 ~ 1.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여성 교수 전용 임용제 실시로 학계 성 불균형 감소 기대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아일랜드 대학은 고등교육에서의 성 격차 감소정책 중 하나인 여성교수 전용 임용제(women-only professorial positions)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3년간 총 45개의 자리가 여성에게 할당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은 아일랜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아일랜드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2020년 150만 유로, 2021년 4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등교육청(Higher Education Authority, HEA)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아일랜드 고등교육에서의 성 격차는 약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아일랜드 대학 내 여성 교수(professor) 비율은 2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공계분야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한 예로 아일랜드 공대 내 조교수(senior lecturer positions) 2/3가량이 남성이라고 한다.

2018년 아일랜드 정부 내 설립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Gender Equality Taskforce)는 지금 이 속도라면 여성 교수 비율이 40%에 이르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양성평등 태스크 포스 고등교육 행동계획(Gender Equality Taskforce Action Plan for Higher Education 2018-2020)을 통해 이번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여성 교수 임용 공석은 20개로, 대학에서는 교수 남녀 성비 불균형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분야에 여성 교수 전용 임용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개 컴퓨터공학, 수학, 생물학, 기후공학 등과 같은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교수 임용 자리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분야에 전문가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가 10명으로 국제 평가 패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심사 및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참고자료

- Irish Examiner(2020.01.03.), "Women-only professorships to be in place at universities by next September", url: <https://www.irishexaminer.com/breakingnews/ireland/women-only-professorships-to-be-in-place-at-universities-by-next-september-973376.html> (접속일 : 2020.01.08.).
- The Irish Times(2020.01.03.), "Twenty women-only professorships to be established this year", url: <https://www.irishtimes.com/news/education/twenty-women-only-professorships-to-be-established-this-year-1.4128975> (접속일 : 2020.01.08.).
- The Telegraph(2020.01.03.), "Ireland approves 20 female-only professorships to tackle academic gender imbalance," url: <https://www.telegraph.co.uk/news/2020/01/03/ireland-approves-20-female-only-professorships-tackle-academic/> (접속일 : 2020.01.08.).

이번 심사를 통해 8개 대학에서는 각 2개, 4개 대학에서는 1개 자리를 할당받았다. 본격적인 여성 교수 전용 임용 절차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채용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다. 이번 이니셔티브가 비단 여성 교수 전용 임용 숫자만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하는 각 대학에서는 젠더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양성평등 추진 목표와 타깃을 설정한 뒤 그 진행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매리 미첼 오코노(Mary Mitchell O'Connor) 고등교육장관(Minister of State for Higher Education)은 이번 이니셔티브가 아일랜드 학계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여성 교수 전용 임용제가 학계에서의 성 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에서 이번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때 탄탄대로만 걸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제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숫자가 정해져서 추진 토대가 마련된 만큼, 여성 교수 임용이 실제 추진되어 나가는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이다.

키프로스 CYPRUS



키프로스 법원, 집단성폭행 피해 영국소녀에 허위신고로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공정 판결 비난 야기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키프로스 공화국 (이하 키프로스)에서 이스라엘 남성 1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영국 10대 소녀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자 영국은 물론 키프로스도 이스라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녀 측은 키프로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해당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재소할 계획을 밝혀 앞으로 싸움이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디언, BBC, 미러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2020년 1월 7일 키프로스 법원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녀 A(19)양이 허위로 신고했다며 공공 소란죄 혐의로 집행유예 4개월에 벌금 148유로(한화 약 18만 원)을 선고했다. A양은 2019년 7월 휴가차 찾은 키프로스의 한 호텔 방에서 15~22세 이스라엘 남성 12명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1명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했으나 해당 남성이 자신을 결박한 뒤 다른 남성들과 함께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법원은 A양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미칼리스 파파타나시우 판사는 “A양의 나이와 정신적 상태, 미성숙함 등을 고려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자료

- Mirror(2020.01.07.), “British teen in Cyprus ‘gang rape’ case spared prison and set to return home”, url: <https://www.mirror.co.uk/news/uk-news/breaking-british-teen-cyprus-gang-21228838> (검색일: 2020.01.13.)
- BBC(2020.01.08.), “Ayia Napa Briton returns home after false rape claim sentence in Cyprus”, url: <https://www.bbc.com/news/uk-51026133> (검색일: 2020.1.13.)
- The guardian(2020.01.07.) “Cyprus rape case: British teenager returning home”, ur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07/cyprus-case-british-teenager-given-suspended-sentence> (검색일: 2020.01.13.)

📌 A 여성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키프로스 경찰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A 양을 압박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것이다. A양이 진술을 바꾸는 바람에 군 복무를 앞둔 이들을 포함해 피의자 12명 모두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A양은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한 달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 A양 변호인 루이스 파워는 “이번 선고로 A양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 측은 2심인 키프로스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갈 의향까지 밝혔다.

📌 A양의 어머니는 “경찰관을 꿈꾸는 딸이 올해 9월 대학에서 범죄학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딸의 심리 상태를 설명했다. A양 어머니는 딸의 무죄를 호소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키프로스 관광 보이콧을 주도하기도 했다.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키프로스는 영국인이 찾는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 이번 사건은 영국은 물론 키프로스 여성들을 자극했다. 법원 판결이 있었던 당일, 키프로스 여성단체는 물론 이스라엘에서 온 여성들까지 ‘We Believe You(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A 양을 응원했다. 키프로스 여성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조금 더 복합적인데, 과거에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여성 7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키프로스 군인인 30대 남성이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여성 7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범인 검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 바 있다

📌 키프로스 여성을 떨게 한 이 사건 이후로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Network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NAVAV)’이라는 단체가 출범했다. 키프로스에서 시위에 참여한 아르겐톨라 이오아노우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연쇄살인범 손에 외국인 여성 7명이 키프로스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몇 년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의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이스라엘 여성들도 키프로스로 원정 시위에 참여해 A양에게 힘을 보탰다. 이스라엘 여성 50명은 A양 판결이 선고되던 날, 파마구스타 지방 법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A양을 응원했다. 이스라엘 성폭행 위기센터 연합(Associate of Rape Crisis Centers) 대표인 솔리지아누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성폭행 사건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판사를 비판했다.

- The guardian(2020.01.07.), “What legal challenges does UK teenager in Cyprus rape case face?”, ur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07/cyprus-case-what-legal-challenges-does-the-uk-woman-face> (검색일: 2020.01.13.)
- The guardian(2020.01.05.), “UK teenager’s conviction touches a nerve with angry Cypriot women”, ur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04/cyprus-british-rape-case-womens-rights-anger-at-injustices> (검색일: 2020.01.13.)



캐나다 사회의 젠더 포용성 강화와 여성권리 침해 주장의 충돌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는 2019년을 정리하는 언론 보도 중에 캐나다 사회의 젠더 의식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제법 많았다. 예컨대, 2020년 온타리오의 첫 쌍둥이 소식을 전한 허프 포스트 뉴스(Huff Post News)는 이 아이들의 성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아이들의 부모가 쌍둥이를 젠더 중립적으로 이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을 헤드라인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최근 언론 보도 양태는 캐나다 사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젠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전반적인 방향은 젠더 포용(Gender inclusivity)이라는 큰 슬로건으로 압축될 수 있다. 캐나다 젠더 정책에서의 젠더 포용성이란 단순히 성소수자의 권리 향상 이상의 함의를 가지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나누어 일상 공간과 정책을 조직하는 것을 폭력적이라 인식하고 다양한 젠더들을 사회정책 안에 포섭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캐나다 젠더 정책에서 포용성이 확대된 기념비적 사건은 2017년 Bill C-16이 입안된 것이다. 이 법안은 “젠더 정체성 또는 젠더 표현(gender identity or expression)을 세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C-16은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캐나다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에 삽입하여 나이, 인종, 성, 종교, 장애에 덧붙여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해당 법안은 캐나다 형법에 혐오 발언(hate speech), 집단 학살이나 대중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조장하는 연설(advocating genocide and the public incitement of hatred)을 규정하는데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포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혐오 범죄를 의율하는 근거로서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정 당시 이 법안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젠더를 포용하는 진보적인 법안으로 평가되었으나, 형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차별이 지나치게 폭넓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또한 있었다.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현 자유당 정권 집권 이래 이러한 포용적 경향은 급속히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고, 가장 눈에 쉽게 눈에 띄는 최근의 변화가 화장실이다. 예컨대 현재 토론토의 공공기관 건물들이 남녀 화장실 외에 젠더 중립(gender neutral, 혹은 all gender)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쇼핑몰 등에도 젠더 중립 화장실을 보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2019년 11월 온타리오주의 샬롯타운(Charlottetown) 시 또한 시가 소유한 모든 건물에 젠더 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 9월 몬트리올(Montreal)시는 곧 신축될 시 수영장 건물에는 남녀 탈의실 대신 하나의 공용 탈의실을 설치하기로 발표하였다. 크고 작은 반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트뤼도 수상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수상은 재선 선거기간 동안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른바 교정 치료(Conversion therapy), 즉 성소수자들의 성지향성이나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치료들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재선 직후 형법 개정을 위한 업무지시를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참고자료

- HuffPost, Kingston(2020.1.4.), “Ont.’s First Twins Of 2020 Are Being Raised Gender Neutral: More and more parents are choosing to raise their kids outside of the gender binary”, url: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raising-kids-gender-neutral_ca_5e0f788fe4b0843d3611bf02 (검색일 : 2020.1.10.).
- CBC(2018.11.8.), “CANADA’S GENDER IDENTITY RIGHTS BILL C-16 EXPLAINED”, https://www.cbc.ca/cbcdocspov/m_features/canadas-gender-identity-rights-bill-c-16-explained (검색일 : 2020.1.10.).
- HuffPost(2019.12.30.), “What LGBTQ Canadians Will Remember From The 2010s: Queer and trans issues were more visible than ever”, url: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lgbt-canadian-decade-moments_ca_5e0a593be4b0b2520d19ba64 (검색일 : 2020.1.10.).
- CBC(2019.11.23.), “Gender-neutral washrooms planned for city-owned buildings in Charlottetown”, url: <https://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pei-gender-neutral-washrooms-city-hall-1.5371141> (검색일 : 2020.1.10.).
- Canadian Women’s Sex-Based Rights, “The Issues”, url: <https://www.cawsbar.ca/the-issues> (검색일 : 2020.1.10.).

이러한 변화들이 대중의 젠더 관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반발 또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가장 큰 논쟁은 역시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여성 긴급 구호 센터 등 여성들만의 공간들이 최근의 젠더 포용적인 정책들에 의해 그 기반을 급속히 침식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러한 주장들이 거세지는 이유는 점점 이러한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8년 토론토에서 여성 전용 중독 재활 시설(the Jean Tweed Centre)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같은 방을 쓰게 된 여성이 인권 재활 시설을 인권위에 제소한 사건, 같은 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남성 성기를 보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민자 여성이 운영하는 16개의 왁싱샵을 인권위에 무더기 제소한 사건, 2019년 3월 역시 여성 전용 시설인 밴쿠버 성폭행 피해자 쉼터 (Vancouver Rape Relief and Women's Shelter)가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었던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일부 캐나다 페미니스트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힘겨운 싸움을 통해 이룩한 여성의 권리, 여성들만의 공간을 젠더 포용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침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1월 몇몇 캐나다 페미니스트들은 캐나다 여성의 성 기반 권리(Canadian Women's Sex-Based Rights)라는 연대를 조직해 “여성은 생물학적 실재이지 단지 여성이라는 느낌이 아니다(Woman: fact, not feeling)”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Bill C-16 폐기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들만의 공간을 보존해야 하며 C-16은 일종의 국가 주도 가스라이팅(state-sanctioned gaslighting)으로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용, 무기처럼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 SWEDEN



스웨덴 우메오(Umeå) 시, 성평등 도시 투어 ‘젠더 랜드스케이프’의 성공 사례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스웨덴 북쪽에 위치한 우메오(Umeå)는 2014년 유럽 문화 수도로 뽑히기도 한 스웨덴 제3의 도시이다. 일찍이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지한 우메오는 도시에서의 성주류화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자 2009년 젠더 랜드스케이프(Gendered Landscape) 제도를 도입했다. 전형적인 도시 투어 프로그램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젠더 관점에서 우메오를 소개하는 젠더 랜드스케이프는 유럽 도시 개발 네트워크인 URBACT에 의해 2017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 Linda. S.(2016), “Imagining the ideal city, planning the gender-equal city in Umeå, Sweden”, Gender, Place & Culture, 23(12).

젠더 랜드스케이프는 우메오 대학의 젠더 연구 센터(Umeå University, Centre for Gender Research)와 우메오 시가 협력하여 개발한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다. 우메오의 성인지 통계를 25가지 주제로 분류한 뒤, 시티투어 버스가 특정 장소나 공간을 방문할 경우 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했다¹⁾. 예를 들면, 시티 투어 버스가 학교 앞을 지나면 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공원을 지날 때면 공공장소에서의 안정감과 안전 문제, 병원 근처에서는 성별로 분리된 노동 시장 결과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는 VR을 사용하여 가상공간 속에서의 젠더 랜드스케이프가 운영 중이며, VR 안경(gender glasses)을 착용하면 우메오 시에 있는 실제 주차장, 지하철 및 버스터미널, 주요 공공 시설물과 함께 각각의 장소에 대한 성인지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도시 공간 내 성평등한 공간과 성불평등한 공간을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티 투어 동안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 외 관광객들에게 성평등 관련 질문을 던짐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²⁾. 젠더 랜드스케이프는 2016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우메오는 젠더 랜드스케이프 정책이 성공하자 새롭게 프리존 파크(Freezone Park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프리존 파크는 기존 도시 공원을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있었던 아크토버(Archtober) 주간에 민주적 관점의 스웨덴 건축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프리존 파크 조성을 위해 우메오시는 먼저 공원 인근 지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원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들은 거의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공원을 재설계하는 것이 프리존 파크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프리존 파크는 지난 2016년 오픈과 동시에 성향을 이루고 있다.

- Umeå,
"Umeå - a progressive and gender equal city",
url: <http://innovationbyumea.se/all-articles/a-progressive-and-gender-equal-city>
(검색일 : 2019.12.20.).
- Observatory,
"Umeå - a model town for Gender Equality",
url: <https://charter-equality.eu/exemple-de-bonnes-pratiques/umea-a-model-town-for-gender-equality.html>
(검색일 : 2019.12.22.).
- Gendered Landscape,
url: <https://genderedlandscape.umea.se/>
(검색일 : 2019.12.22.).
- UMEA KOMMUN,
url: <https://umea.se/umeakommun/kommunochpolitik/manskligarattigheter/jamstalldhet.4.118a77010256f6c90180005994.html>
(검색일 : 2019.12.27.).
- URBACT,
url: <https://urbact.eu/all-networks>
(검색일 : 2019.12.22.).

1) 실제 시티 버스 투어는 The Beautiful Landscape 로 운영되었다.

2) 주요 질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스포츠 센터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 현재까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자주 사용했는지?,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조성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지, 공원 편의시설이 특정 성(Gender)에게 편향되도록 설계된 경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도시 계획에서 젠더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